



국제플라자 뉴스



공익재단법인 미야자키현 국제교류협회 〒880-0805 宮崎市橋通東4-8-1 카리노 미야자키 지하 1층
Tel : 0985-32-8457 Fax : 0985-32-8512 Homepage : <https://www.mif.or.jp> E-mail : miyainfo@mif.or.jp
개관시간 : 오전10시~오후7시 (화요일~토요일) 휴관일 : 일·월·공휴일, 연말연시 (12월29일~1월3일)

미야자키현 국제플라자 카운터 자원봉사자 모집

현내재주의 18세 이상의 분들을 대상으로, 국제플라자 업무를 도와주실 카운터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신청서에 필요사항을 기입하신 후, 9/3 (수) 까지 신청바랍니다. 《응모다수의 경우에는 서류전형 있음》
※국적은 관계없으나, 간단한 일본어로 대응 가능하신 분들에게 한합니다.

◇활동기간: 2025년 10/1(수)~2026년 3/31(화)

◇활동일시: 화요일~토요일 중 주1회

※매주 같은 요일, 시간대에 활동하시게 됩니다.

①10:15~12:45 ②13:00~15:30

◇내 용: 방문객 대응, 도서 대여와 반환 수속, 문서발송 보조, 도서·자료정리, 재활용 우표의 정리와 발송 등

◇그 외: 교통비, 사례금은 지불하지 않습니다.

※자원봉사자 보험은 당협회가 부담하며, 카리노 미야자키 주차장을 이용하실 경우 주차권을 드립니다.

◇신청·문의: (公財) 미야자키현 국제교류협회



신토미정 지역 일본어 교실 ※이벤트 소개

◇일시 : 7월 13일(일) 10:00~12:00

◇장소 : 신토미정 종합교류센터 키타리(きりり)

◇내용 : 유카타 착용 체험 / 가루타

◇상세 내용 : 히나타 일본어 나비를 확인해 주세요.

<https://hinatanihongo.mif.or.jp/korean/>

◇문의: (公財) 미야자키현 국제교류협회



사이토시 지역 일본어 교실 ※무료·사전 신청 필요

지역 사람들과 일본어로 즐겁게 이야기하고, 방재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일시 : 7월 27일(일) 10:00~12:00

◇장소 : 사이토시청 북관 4층 회의실

◇내용 : 방재(피난소 사용법)

◇상세 내용 : 히나타 일본어 나비를 확인해 주세요.

<https://hinatanihongo.mif.or.jp/korean/>

◇문의: (公財) 미야자키현 국제교류협회



일본어 자원봉사 소개 ※사전 신청 필요· 무료

현 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나 귀국자 등 일본어를 배우고자 하시는 분께 당 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일본어 자원봉사자를 소개합니다. 학습장소, 시간,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들끼리 정하시면 됩니다.

◇대 상: 현 내 거주로 일본어를 공부하고 싶은 분

◇신청·문의: (公財) 미야자키현 국제교류협회



국제교류원과의 당사회 ※무료·사전 신청 필요

일본어나 외국어로 현의 국제교류원과 즐겁게 이야기해요.

★영국에서 온 캐서린 씨와 함께 이야기합니다!

◇일 시: ① 7월 4일(금) 18:00~19:00 (일본어&영어)

② 7월 18일(금) 15:00~16:00

◇마 감: ① 7월 1일(금) ② 7월11일(금)



★싱가포르에서 온 유딩 씨와 함께 이야기합니다!

◇일 시: 7월29일(화) 16:00~17:00 (일본어&중국어)

◇마 감: 7월22일(화)



★한국에서 온 해정 씨와 함께 이야기합니다!

◇일 시: 7월 31일(목) 18:00~19:00 (일본어&한국어)

◇마 감: 7월 24(목)



◇장 소: 카리노 미야자키 지하 1층 미야자키 국제플라자

◇정 원: 각 4명(참여 횟수가 적은 사람을 우선한 선착순)

※신청은 전화, 메일 또는 방문 접수로 접수하고 있습니다.

◇신청·문의: (公財) 미야자키현 국제교류협회

외국인을 위한 일본 전통문화 체험강좌 in 미야코노조

9월 20일(토) 13시부터, 미야코노조시 혹은 인근 거주 외국인 대상으로 대나무 등롱 만들기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상세 내용이 정해지는 대로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겠습니다.

◇문의: (公財) 미야자키현 국제교류협회



신간 공지

카리노 미야자키 지하 1층의 '미야자키현 국제플라자'에는 도서 코너가 있어, 1인당 최대 2권을 2주간 무료로 빌릴 수 있습니다. 다문화공생에 관한 도서를 비롯한, 영어·중국어·한국어 등의 외국어도서와 일본어능력시험 대비 교재 등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제플라자랑 같이 설치되어있는 교류 스페이스에서 영자 신문을 읽거나, 공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부디 이용해 주세요.

【미야자키현 국제플라자】

카리노 미야자키 지하 1층의

Tel: 0985-32-8457

Email: miyainfo@mif.or.jp

개 관 시 간 : 오 전 10 시 ~ 오후 7 시 (화 요 일 ~ 토 요 일)

휴관일 : 일·월·공휴일, 연말연시 (12월29일~1월3일)



미야자키 외국인 지원 센터로부터의 안내문

온라인(Zoom) 상담
※무료·사전 신청 필요

미야자키 외국인 서포트센터에서는, 센터에 방문이 어려우신들을 위해 ‘온라인(Zoom) 상담’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①~③을 기재하여 Email로 신청해 주십시오.
①이름 ②상담하고 싶은 날짜/시간,③상담하고 싶은 것 (육아, 노동, 학교/교육, 의료, 일본어 학습, 재류 자격 등)

◇상담 접수 : 화요일부터 토요일의
10:30~12:00, 14:00~17:00
※일요일, 월요일, 공휴일은 휴무



◇신청·문의: 미야자키 외국인 지원 센터
(카리노 미야자키 지하 1층)
Tel : 0985-41-5901 Fax : 0985-41-5902
E-mail : support@mif.or.jp



국제 플라자에서 민족 의상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미야자키현 국제 플라자(카리노 미야자키 지하 1층)에서는 세계의 민족 의상을 전시하고 있습니다.많은 방문 부탁드립니다.

7월의 이벤트



이벤트	개최일시	장 소	문의처 / 최신 정보
미야코노조 롯갓도 오카게 축제	7 월8일 (화) 7 월9일 (수)	미야코노조시 니시미야코노조역 앞, 미야코노조역, 야사카 신사, 간바시라궁	오카게 축제 진흥회 0986-21-4835
축제 에레콧차 미야자키	7 월26일 (토) 7 월27일 (일)	미야자키시 타치바나 거리, 쿠스나미키 거리	축제에레콧차 미야자키 진흥회 사무국 0985-83-2216
아부라쓰 항 축제 2025 불꽃축제	7 월19일 (토)	니치난시 아부라쓰 항 주	니치난시 관공협회 0987-31-1134

신간 공지

미야자키현 국제교류협회의 잡지 코너에 새로운 잡지가 들어왔습니다!
일본어 학습 잡지 “히라가나 타임스 (HIRAGANA TIMES)”
일본어와 일본문화를 일본어, 영어 두 언어로 공부할 수 있는 월간지입니다. 근처에 들릴 때는 꼭 봐주세요.

방문자의 코멘트

후리가나, 로마자 표기, 영문이 있어 일본어를 공부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매우 알기 쉽습니다! 특히 이번 달 호는 에도시대의 문화에 관한 내용으로, 신사와 절을 좋아하는 저는 표지에도 끌렸습니다.



스태프의 한마디

어떤 상황에도 의사소통은 중요합니다만, 스포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테니스 복식을 연습하면서 파트너와의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실감했습니다. 일본에서는 ‘부탁해’나 ‘말거줘’ 등이 많이 사용되는데, 수년 전 해외에서 테니스 그룹에 참가하기 시작했을 때, 언어의 차이에 당황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현지 남성과 복식 경기를 했을 때, 경기 중에 갑자기 “You! You! You!”라고 큰 소리로 소리쳐 온 것입니다. 같은 팀인데도 위압적으로 느껴져 놀랐지만, 이것은 ‘당신이 잡아!’라는 의사 표시로, 화가 난 것이 아니라 원활한 팀워크를 위한 신호였던 것 같습니다.

문화가 다르면 의사소통의 언어도 다르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다른 스포츠에서는 어떤 언어가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스태프 : A)



테게테게 미야자키 라이프

《헤엄치는 양》



국제교류원
양해정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번 칼럼에 이어서 이번 달도 열심히 수영하고 있는 양해정입니다.
여러분은 학창 시절에 별명이 있었나요? 제 성인 양(梁)은, 양(羊)과 발음이 같아, 저는 양이 들어간 별명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요, 양, 양고기, 양꼬치 등... 지금까지는 제 별명만 양이라고 생각했는데, 최근 수영 교실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제 운동 신경도 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치 ‘물에 빠진 양’이었던 양해정의 이번 목표는 : ‘헤엄치는 양’이 되자!
매주 월요일의 수업 이후, 주 1회는 혼자서 연습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물이 무서워 물속에 얼굴을 넣기도 싫어하던, 그리고 물에 들어가기만 하면 바로 가라앉던 제가, 킥판을 잡고 발을 차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영법을 연습하고 있는 다른 수강생들보다는 훨씬 느렸지만, 레인의 반대편에 마지막으로 도착할 때마다 열심히 박수를 보내주는 모두의 응원을 받으며 조금씩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뼘 한뼘 손이 킥판에서 멀어지고, 물에 얼굴을 넣을 수 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면서, 어느 순간 킥판 없이도 물에 두둥실 뜰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벌써 6주 수업의 마지막 날, 선생님이 지목한 이번 교실에서 가장 실력이 늘은 사람은... 바로 양해정! 아직 호흡도 익숙하지 않고 팔을 젓기만 하면 바로 가라앉는 단계지만, 저의 ‘헤엄치는 양’이 되기 위한 도전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언젠가 미야자키의 수영장에서 자신 있게 헤엄치는 양(해정)을 찾아주세요!

